

차별과 혐오...인권 위기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인권을 말해야 할 때

전진성 외 6인 | 철수와영희 | 1만7000원



최근 정부가 지명한 국가기관장 후보들의 자리에 맞지 않는 성향이 논란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크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들에 기인한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지난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참여해 "(차별금지법이라도 도입되면)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며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좌파의 정체성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결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그의 설명처럼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안 후보자의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에서 기인한 인식일뿐일까? 인권의 개념이 점점 모호해지는 '인권 위기시대', 여섯 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 '인권을 말해야 할 때'가 나왔다. 인간이라면 성별과 국적, 외모,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갖는 권리로서 '인권'을 말한다.

이 책은 인권의 개념, 일상에서 발견한

인권, 인권과 평화, 인권과 정치사상, 인권의 역사, 옹거의 인권론 등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인권'을 설명한다. 인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권인지 등 인권의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인 인권 사상까지 한 권에 담은 인권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권 길라잡이다.

소수자와 약자에 관심이 많은 전진성 교수는 인권을 쓸모 있게 만들고 인권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권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이웃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권의 역사일 수 있고, 측은지심이 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인권이 쓸모 있게 되려면,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실질화시켜 평화를 지키자고 말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이 평화라는 성취로 이어질 거로 전망하며, 평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치학자 김비환 교수는 인권 사상의 변모와 발전을 살펴본다. 인권은 단순한 지적 관심의 대상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 요구여야 한다면서 인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 능력을 활용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권의 확립이 억압받은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의 산물이었다면 것처럼 인권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우리를 연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술가로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

었던 박홍규 교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대통령부터 자유를 거둬 강조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조차 뒷걸음질 치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시장 자유주의 수준의 자유 인식을 벗어나, 최소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말했던 19세기 수준의 자유라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19세기식 자유도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전적 법학자인 이재승 교수는 로베르토 움거의 저작에 드러난 인권 사상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만, 구조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각자 가진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한편 우리를 억압하는 구조도 함께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3년 8월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엮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인권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상, 역사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명화 속 숨겨진 시대의 장면, 역사가 되다

사유하는 미술관

김선지 | RHK | 2만2500원



미술 작품에 잠들어 있던, 혹은 흘러보냈던 역사를 여섯 가지 키워드로 풀어살펴보는 그림 역사책이다. 그림 작품에는 단순히 미학적 목적이나 예술적 가치 외에도 그 시대와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예술 작품은 한 시대와 사회, 역사를 반영하는 기록물이자 인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교과서적인 역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익숙한 시선이 아닌, 자유롭고 개방적인 눈으로 과거 인물들의 행적과 역사적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목적은 미술을 통한 인문학적 영역으로의 확장에 있다.

다수의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은

유와 암시를 비밀 코드처럼 심어두었던 그림에는 화가의 의도가 항상 담겨 있다는 것. 화가는 단순히 찬란하게 빛나는 명화 한 점을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 값비싼 중국 도자기, 해외에서 들어온 진귀한 과일, 값비싼 꽃, 귀여운 앵무새나 개처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취급을 당했던 '인간 사치품' 혹은 노예가 그려진 '정물화'가 대표적이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줄리앙 반 스트리크는 정물 사이에 흑인 하인을 넣어 주문자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그림들을 다수 제작했다.

19세기 말, 템스강 주변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멀리 있는 물체를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게 한 스모그는 또 어떤가. 영국 산업혁명의 부산물인 스모그는 노란색, 갈색, 검은색 등 색색의 안개 스펙트럼이 펼쳐진 도시 풍경을 자아냈고, 많은 작가와 예술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클로드 모네는 "안개가 없었다면 런던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도시를 장악한 신비로운 안개와 안개 속의 황홀한 빛의 효과를 사랑했고, 도시의 모든 것을 덮고 용해하는 템스강 안개의 마법에 매료되어 100여 점에 달하는 '워털루 브리지', '국회의사당', '채팅크로스' 연작을 남겼다.

이처럼 저자는 명화에 기록된 서사에 새 숨을 불어넣어 다시 우리 눈앞에 서게 했다. 찬란하게 빛나는 명화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를 조명한다. 그동안 그림에서 읽어내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지닌 이야기, 그 이면의 그림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투명하게 내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림 속에 갇혀 있던 이야기를 더욱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명화가 전하는 즐거움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눈 앞에 펼쳐질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사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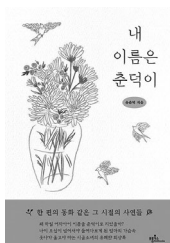
도선인 기자



시(詩)로 피어난 고단했던 엄마의 삶

내 이름은 춘덕이

유춘덕 | 프롬박스 | 1만6800원



장성과 광주에서 나고 자란 유춘덕, 오십이 넘는 나이에 자신의 글재주를 발견하고 한편 한편 지은 글을 모아 첫 수필집 『내 이름은 춘덕이』를 출간했다.

어린 시절 엄마와 엮힌 사연을 회상하는 글 모음으로, 들었다 났다 웃겼다 울렀다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글을 쓰면서 오래오래 그토록 부끄러웠던 이름이 오히려 멋져 보였다는 천진한 발상, 치매 초기인 노모의 말이 시(詩)로 들린다는 감성, 어린 시절에 꼬인 감정의 실타래를 이제와 풀어보는 느린 사유와 여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들과 판소리 같은 전라도 사투리가 수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유춘덕 작가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건 불과 몇 해 전, 오십이 훌쩍 넘은 나이다. 언니 따라 글쓰기 모임에 갔다가 선생님의 눈에 띄어 글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작해, 책을 만들어준다는 제법 규모 있는 응모전에 당선되기까지 했다. 눈에 싹

줄이 터지고 시각에 손상이 올 정도로 몰입하며 이 한 권의 책에 그녀가 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책에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춘덕이의 엄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딸 다섯을 홀로 키운 역적이다. 고무신에 뽀뽀바지, 뽀뽀머리로 기억되는 전형적인 촌부(村婦)로, 남들 볼 땐 한숨 한번 안 쉬었다는 '독한' 여자지만 아이들 머리 이 잡는다고 파리약 피디피 안 뿌리고 하나 하나 잡아주던 '따뜻한' 엄마다. 그런 엄마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치매가 시작됐다. 기억을 잃고 있다. 춘덕이는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궁금하게 많아 물어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록한다.

춘덕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며 '당했던' 다양한 반응들, 엄마의 구수한 사투리로 전해 듣는 아빠 이야기. 옷과 헤어스타일과 신발에 얽힌 사건들, 고향 친지 친구들과 과의 추억, 도시로 이사한 뒤의 생경하고 쓸쓸한 느낌, 엄마와 언니 동생 사이의 서로 다른 기억과 오해 등 작가의 글 속에서 엄마 생각, 고향 생각은 아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작가가 스스로 밝혔듯, 자신의 미모와 바꾼 글 하나하나가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도선인 기자

나는 왜 집중을 못할까?

니콜라 모건 | 뜨인돌 | 1만5000원

청소년을 위한 단 한 권의 '뇌' 사용설명서. 한시도 집중을 못하고, 매일 늦잠을 자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청소년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게을러서도, 중2병에 걸려서도 아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뇌'가 숨어 있다. 청소년기의 뇌는 '어른이 되기 위해' 여러 영역이 이어지고 분리되면서 어마어마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담은 실제 사례와 카툰, 집중력과 공감 능력 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읽어보자.



귀매

유은지 | 문학동네 | 1만7000원

2002년 출간되었던 한국형 오컬트 장편소설 『귀매』가 문학동네 플레이 시리즈로 개정 출간되었다. 한국의 전통 신앙인 무속을 대대적으로 소설화한 장편

『귀매』는 'K-오컬트'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며 지금 독자들의 욕구를 완벽히 충족시켜줄 단 한 권의 소설이다. 울창한 자연 한가운데서 오싹함과 경이감이 뭉쳐 태어난 영적 존재인 '귀매'부터, 물귀신과 서낭신, 도깨비, 인간을 수호하려는 인자한 성정의 당할머니신 등, 우리나라 고유의 다양한 귀신들이 오감을 자극한다.



찬란한 멸종

이정모 | 다산북스 | 2만1000원

멸종으로 보는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한다. 이 책은 인류가 멸망한 2150년 인공지능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화성 테라포밍을 실행한 2100년, 지구에 아직 빙하가 남은 2024년,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하기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방대한 역사를 생생한 도판과 함께 엮어낸다. 그뿐만 아니라 범고래, 네안데르탈인, 산호, 삼엽충 등 지구 생명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 그동안 인간이 지구를 바라봤던 모든 관점을 뒤집는다.

